



# 10대 초반 소녀들의 사춘기에 대한 담론분석

이 은 주<sup>1)</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해가는 기간은 십대, 사춘기, 청소년, 중고교생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며, 한편으로는 갈등과 방황 혹은 혼동의 시기로, 다른 한편으로는 활기와 생명력이 넘치는 시기로 묘사된다. 청년기와 사춘기는 때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청년기란 표현과 달리 사춘기란 용어는 학술적 의미와 일상적 의미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사춘기(puberty)는 라틴어 pubertas에서 파생된 용어로, 성인다운 연령, 모발의 성장, 음모의 발생을 의미한다(김소야자, 1987). 간호학과 의학을 위한 한 영어사전에서는 이를 2차 성징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성적 생식 능력을 획득하는 시기로 정의한다(Miller & Keane, 1983). Whaley와 Wong(1979)은 청년기와 관련한 용어를 설명하면서 사춘기를 일차적으로 생식 기관들이 기능을 하기 시작하고 2차 성징이 발달하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홍창의(2001)는 '신장의 급성장과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생물학적인 성장'의 시기로 설명한다. 그리고 한 심리학 텍스트(송명자, 1995)에서도 청년기의 발달적 특징 중 신체 및 성적 발달을 묘사하기위해서만 '사춘기'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간호학 연구에서도 '사춘기'를 다룬 연구는 대부분 월경(우지희, 1997; 정현숙, 1996), 신체상 그리고/혹은 우울(박영주 등 1999; 정영남, 2001), 성교육(강남미, 김영란, 박영숙, 손인숙, 이성호, 2002) 등에 관한 것으로, 주로 신체

적 성장과 성적 변화에 관련해서 다루고 있다. 정리하면, 학술적으로 사춘기란 용어는 청년기의 시작을 알리는 징후로서, 청년기의 성적 변화를 포함하는 신체적 성장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사춘기'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정한 감정적 변화나 행동을 보이는 젊은이들에게 붙여지는 용어로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때로는 더 나이든 연령층에서의 유사한 혼란이나 방황을 경험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비유적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이미나, 2000). 이처럼 일상적인 용어로서 사춘기는 신체적, 성적 측면보다는 정서적 심리적 변화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시기를 어떻게 부르든 각 사회와 문화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차이가 있으며, 결정적으로 이를 구분해주는 경계는 불확실하다. 산업화 이전의 많은 사회에서 성인의 역할 수행은 현대의 후기 아동기에 시작되었고 결혼과 성인직업은 십대중반이면 어느 정도 결정되었다(Breger, 1974, 1998). 즉, 성인기와 아동기 사이의 이행기 설정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는 것이다(이은주, 2000). 또 한 신문에서는 '34살까지 사춘기'란 제목으로, 미국의 관련학회에서 논의된 사춘기 연령 연장 논쟁에 대해 보도하기도 하였다(이도선, 2002). 이는 '과도기적' 혹은 '아직은 미완성인' 이 이행시기의 의미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상대적이며, 그 사회의 지배담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단어 혹은 개념에 대한 학술적 의미와 일상적 의미가 다른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사춘기와 같은 관련 대상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용어에서의 차이는 연구나 실무에서 대

주요어 : 사춘기, 담론분석, 십대 초반, 소녀

1)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flym2m@cheju.ac.kr)

투고일: 2004년 10월 26일 심사완료일: 2004년 12월 22일

상자 이해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간호학 연구에서 사춘기를 주제로 다룬 연구는 소수이고,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춘기 아동들이 경험하는 전반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사회 문화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그들 자신이 보는 사춘기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사춘기가 신체적 발달측면에 관한 것이든 혹은 인간 발달 제 측면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든, 실제로 '사춘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담론 속에서 '사춘기'가 무엇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춘기에 대한 '그들의 관념 혹은 패턴화된 사고방식'인 사춘기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에게 '사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 의미는 어떻게 형성되고,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목적

이 연구는 10대 초반 소녀들의 사춘기에 대한 담론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누가 무엇을 언제 알아야 하는가는 우리가 처한 사회의 규범과 관련되며(이은주, 1995), 우리가 알아야 할 혹은 알 수 있는 것도,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지식까지도, 사회적 인식관 아래서, 구조적으로 선택되고 배제된다(Foucault, 1969, 1992)는 전제를 받아들인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실제로 '사춘기'를 경험하는 이들의 사춘기는 무엇인가? 이들의 사춘기 담론의 틀은 무엇이며, 이는 어떤 효과를 낳는가? 이 효과로 '사춘기'인 자신들을 어떻게 정체화하는가? 이 연구는 이 문제들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이 시기 아동들의 발달상의 과제 해결과 건강 관리에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 방법

### 담론분석

Michel Foucault(1926-1984)의 연구에서 담론(discourse)이란 말이나 글로 표현된 것 혹은 언어화 된 것으로, 언어체계와 사회체계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실천의 산물(김성언, 1992)이다. Lupton(1992)은 담론을 “텍스트적인 그리고 구어적인 의사소통에서 확인될 수 있고, 더 넓은 사회적 구조에서 찾을 수 있는 일군의 관념 혹은 패턴화된 사고방식”으로 정의한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담론은 세계에서의 우리의 해석, 지각 그리고 상호작용을 구성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담론은 내면화되고, 지침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젠더나 인종과 같은 어휘가 중요한 것이 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Allen & Hardin, 2001). 이렇게 담론이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 영향을

주고 이를 일정한 방향으로 틀 지울 수 있는 권력의 효과를 지니는 까닭에, 사람들은 담론을 획득하려 하고 그 권력의 효과를 통제하려 한다(김성언, 1992). 권력은 수용 가능한 지식을 제한하며, 지식(말과 글로 표현되는 것)은 권력관계에 의해 설정된 제한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고 때로는 저항으로 발달한다. 이 저항적 요소가 변화의 가능성을 창조하는 것이 된다(이은주, 홍경자, 2001).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왜 다른 것이 아닌 특정한 담론을 사용했으며, 사물을 보는 시각이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는가(Foucault, 1980, 1991)하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

### 연구 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초등학교 5학년 6명과 6학년 7명, 중학교 1학년 5명과 2학년 6명 여학생으로 총 24명이었다(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이며, 이중 1개교는 남녀공학). 이들의 연령은 10년 8개월 -14년 10개월로, 평균 12년 9개월이었다. 참여자들에게는 세 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는데, 첫 자릿수는 초등학교(1)와 중학교(2), 두 번째 자릿수는 학년, 마지막은 그 학교와 학년집단에서의 번호였다. 155는 초등학교 5학년 5번째 참여자이다.

###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03년 10월 29일 - 12월 27일에, 대면 면담(face-to-face)으로 이루어졌으며, 1인당 40-65분이 소요되었다. 한 아동에 대해 1-3회 면담을 하였고, 초등학교생보다는 중학생에서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 면담은 참여자들의 의사에 따라, 그들의 집이나 학원, 보건실 등에서 이루어졌다. 면담 시의 질문은 준구조화된 것으로, 사춘기에 관련한 문헌과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질문은 학교와 가정에서의 일상생활, 친구관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변화, 이러한 변화에 대한 그들의 견해, 변화와 관련한 정보원 등에 대한 것을 담고 있었다.

면담의 녹음, 자의적 참여, 그리고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아동의 부모에게도 아동의 연구 참여에 대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동의를 받았다.

### 자료분석

Cheek(2000)은 저서에서 담론을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여러 가지 연구 예를 들고 있지만, “포스트모던과 포스트구조주의 연구에서 수집된 정보의 관리와 분석에 대한 일련의 규

칙 혹은 지침을 지적하는 것은 좀 더 어렵다. ... 연구에 단지 하나의 접근법 혹은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담론분석의 방법은 하나의 방법이 아니며, 하나의 방법이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담론분석의 결과 역시 "하나의 결과"일 뿐, 이것은 그 담론에 대한 유일한 분석 혹은 해석임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포스트구조주의가 다양한 목소리, 시각 그리고 표현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서의 실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다양성, 복수성, 파편화, 불확정성을 선호하며, 사회적 일관성과 인과성의 개념을 부정하고, 전체화하고 일반화하는 서술과 설명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선행연구와 연구자의 담론분석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사춘기에 대한 담론을 2단계로 분석하였다. 첫 단계는 녹음된 면담자료의 전사본을 읽고, 공통적인 속성을 가진 문장들을 범주화하고, 각 범주들에 그 특성을 담은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었다(5개의 범주). 각 범주는 그 특성에 따라 하부범주를 가진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 단계는 이를 담론 외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소녀들의 담론을 가로지르는 담론적 틀(3개의 틀)을 드러내었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1명의 아동간호학 교수와 함께 면담자료와 분석결과를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하였다.

## 연구 결과

### 1 단계 : 정상성 확인하기

연구에 참여한 소녀들에게 사춘기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을 확인하고 보장받음으로써,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상임을 확인해가는 과정이었다. 이들에게 정상이라는 것은 변화에서 어디까지가 정상이라는 변동의 개념은 없었으며, 단지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이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 ● 사춘기 정의하기 : 변화 경험하기

참여자들의 사춘기에 대한 정의의 공통적인 속성은 '변화 경험하기'였으며, 이는 7가지, 어른으로 변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및 성적으로 변화와 이상행동으로 변화로 분류되었다. '어른으로 변화'는 사춘기를 그 자체의 특성으로 언급하기보다, 성장이나 어른과 같은 어휘를 사용하여, 도달하지 못한 혹은 무엇인가 결여한 상태로 표현한 것이었다. 이 하부범주에서 사춘기는 단지 "어른이 되어 가는 단계", "어른이 되기 전의 그런 것", "성장하는 과정 중에 중간쯤" 등으로 묘사되었다. '신체적으로 변화'는 "몸이 변할 것 같은... 키가 많이 크는 시기", "신체적으로도 크는"등으로 이야기되었다. 이 하부범주에서 유방증대, 음모발생, 월경 시작과 같은 여성

사춘기의 특징적인 현상은 묘사되지 않았다. 이런 경향에 대해 한 소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춘기요? 몸이 변화하는 것은 사춘기라고 생각 안 하구요. 사춘기에는 엄마가 뱀다 싫어 ... 그러니까 친구들 말고는, 어른들은 대개 싫어지는 시기 같아요. 개들[친구들]도 별로 ... 대부분 몸의 변화를 사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213)

위의 인용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회적으로 변화'라는 하부범주에는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친구들 하고만 있고 싶은", "외모에 신경을 쓰는", "부모/어른들이 싫어지는" 시기라는 진술들이 포함되었다. 이 하부범주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의미하기보다 사회적 고립이나 대립을 의미하였다. '정서적으로 변화'는 가장 많은 소녀들이 다양하게 언급한 것이었는데, "예민해지고", "신경질/짜증이 많아지고", "우울해지고", "소심해지고", "상처를 많이 받는" 등으로 부정적 정서를 표현한 것이었다.

'인지적으로 변화'는 "고민을 많이 하는", "인생이란 왜 이럴까"하고 생각하는 시기로 사춘기를 정의하는 진술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인지적 변화는 다른 표현들에 비해 덜 구체적이고, 모호하게 표현되었다. '성적으로 변화'는 "남을 좋아하게 되는", "이성교제에 눈을 뜨고, 남자 ... 또래 아이를 남자로서 의식하게 되는 때"로 표현되었다. 여기서 표현된 성적 변화는 이성애적이며, 성적 충동이나 호기심으로 나타났지 않았다. '이상행동으로의 변화(가능성)'는 사춘기의 취약성을 표현하는 진술들이 포함되었다: "교과서에서는 자아정체성이라나 ... 막 이렇게 방황하게 되고, 그 시기적으로 가장 약하게 되는 자기정신적으로나 ... 한 번 잘못되게 되면 인생이 바뀌지게 되는 시기, 그런 시기라고"(221).

소녀들의 사춘기에 대한 정의는 신체적 변화보다는 다른 변화, 특히 정서적 및 사회적 변화로 언급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정서적 사회적 변화는 긍정적이라기보다 부정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이 변화는 빨리 사춘기를 벗어나고 싶은 이유이기도 했다.

#### ● 사춘기 인정하기 : 자신들의 사춘기 정의와 연결하기

소녀들은 자신이 사춘기에 있는가를 자신들에게 나타난 사춘기적 변화(유방증대, 음모발생, 월경시작)가 아니라, 자신들의 사춘기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판단하였다: "(사춘기는) 그냥 어른 되기 전에, 좀 주변을 맴돌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부모님한테 반항하는 그런 때 ... 아직은 (사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사춘기라고 하면 이유 없이 반항하거나 자기 혼자 있고 싶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혼자 있는 것보다 동생이나 엄마랑 같이 있는 것 좋고 엄마한테 대드는 것은 모르겠어요."(222) 또 이들 중 일부는 "엄마도 그래요. 사춘기라고 ..." 등의 부모의 호명하기를 들어 자신이 사춘기임을 인정

하였다.

- 실제적 변화를 선택적으로 배제/인정하기 : 자신들을 비성적인, 부정적 존재로 보기

소녀들이 현재 경험하는 변화에 대해 말하기의 방식은 이를 선택적으로 인정하고(특히 정신 정서적 변화), 사춘기의 신체적 성적 징후는 배제하면서 자신을 비성적인(nonsexual) 존재로 취급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녀들이 경험하고 있다고 말한 신체적 변화에는 여성 사춘기 변화의 특징적 현상(유방, 월경, 음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나온 답과 차이가 있었다. “키가 크고”, “체중이 늘고”, “허벅지가 굵어지고” “얼굴이 예뻐지고” 등이 포함되었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사춘기인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았던, 신체적 변화(예, “허리도 조금 들어가고, 가슴도 나오게 되고 요기에 털도 나고 생리도 하고”, 224)를 더 많이 열거하였으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도 말하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렸다. 또 그들은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표현할 때 구체적인 신체부위를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요기(여기)”라고 말하거나 손으로 가리키는 동작을 더 많이 하였다. 참여자들 대부분이 음모나 성기, 유방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보다, “요기에 털이” “가슴이 나오고” 하는 어휘로 표현하였다.

정신·정서적 변화로는 “신경질이 늘고” “짜증이 나고”, “부모님에게 대들고”, “친구들 하고만 말하고” 등의 ‘사춘기 인정하기’나 ‘사춘기 정의하기’에서 나열된 것과 유사한 부정적인 기조의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그러나 소녀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의 주관적 상태를 설명할 때는 일반적인 사춘기에 대해 말할 때의 표현에서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길게 그리고 더 풍부한 어휘로 이야기하였다.

- (신체적) 변화를 여성이 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적응하기 : 특별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기

소녀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 앞서 기술한 것처럼 신체적인 것, 특히 사춘기의 성적 변화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는 정신·정서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 설사 그것이 부정적인 기조를 띤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더 편한 것으로 보였다. 그들은 이러한 정신·정서적 변화를 자신들의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생활을 힘들게 하더라도, 자신들이 속한 생의 시기에서는 의례히, 누구나 그런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소녀들이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변화는 정상에 속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변화였다. 그들이 신체적 변화를 인식하고 적응하는 과정은 그것이 자신에게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여성’, ‘성인’ 혹은 ‘성인여성’이 되는 누구에게나 일어

나는 과정, 정상적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유방 증대를 인식하고 이에 적응하는 과정은 ‘가슴이 커져서’ 불편하지만,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브래지어를 하면서 자신의 정상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들은 유방이 커졌다고 인식하였을 때, 처음에는 “아프다”, “부끄럽다”, “귀찮다”. “불편하다”, “이상하다”, 혹은 “새롭다”고 느꼈다. 유방이 커지지 않은 소녀들도 유방이 커진다면 이들과 유사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처음에는 유방이 커지는 것에 대체로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대해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가슴의 크기”는 친구들을 놀리거나 부러워하게 되는 대상이 되었다.

음모 발생에 대해 묻는 것은 참여자들은 다른 어떤 질문에 대해서보다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 일부 소녀들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라고 회피하거나 “샤워하다가 보고 ...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라고 무시하였다. 나머지 더 많은 참여자들은 음모가 난 것에 “놀랐다”거나, “없어졌으면 좋겠다”거나,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음모가 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똑 같이 어른이 되는 것”, “여자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 음모도 났어요. ... 목욕하면서 알았어요. 처음엔 대개 췌피했어요. 엄마에게도 말하기 싫어요. 엄마가 같이 목욕탕 가자고 해도 보여주지 않고. ... 그런데 이제 이게 다 여자다 생각하니까.....”(226)

월경을 하는 소녀는 11명이었는데, 이들에게 그것은 처음에는 “놀라고”, “귀찮고”, “아프고”, “찝찝하고”, “기쁘지 않았고”, “너무 빨리 왔고”, 혹은 “조심해야 하는” 현상이었다 : “생리라는 게 엄청 불편해요. 자꾸 [생리대를] 갈아 주는 것도 그렇구요, 생활할 때도 움직일 때도 앉았다 일어났다 그럴 때도 문을까봐 ...”(214). 생리를 하기 전에 생리를 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느낌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 “중1 때, 6월 달에 [생리가 시작되었어요] ... 약간, 다른 날보다 좀 찝찝한 날도 있고요. 약간 기분을 모르겠거든요. 다른 날 보다는 불편하죠. ... [생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친구들과한테 ... 그리고 엄마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것 약간 말해주시고, 학교에서는 성교육 할 때 여자 따로 남자 따로 해서 성교육 해주시거든요. 그 때 선생님이 말해주시니까 [생리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 그냥 그날 되면 애들끼리 자기 그날이라고 얘기하구 그러면 친구들이 조심, 조심하게 같이 행동해요. ... 그날이 되면 약간 기분이 상하거든요. 애들이 서로 서로 조심해줘요.”(222)

월경을 하지 않는 소녀들에게 그것은 “섭섭하거나”, “늦어지면 불안”하지만 한편으론 “늦게 해서 좋은” 일이었다. 이들도 이에 대해 월경을 하는 아이들이 유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월경에 대해, 특히 “피”와 “아픔”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더 많이 표현하였다(“무서워요. 그 피, 자기가 피가 나는 게...”, “고통스럽다고 하니까 ... 많이 아플 것이다”). 월경이 늦다는 것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성장의 속도가 늦은 것이란 의미를 갖기도 했지만, “생리를 하면 갑자기 키가 안 크고” “허벅지에 살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자신의 변화하는 몸 전체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은 3가지로 구분되었다. 우선 ‘긍정적인 반응’은 자신의 몸을 “금 같은”, “아름다운”, “보석 같은” 것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런 반응들은 자신의 몸의 변화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성’이 되는 정상적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아름다운 몸 ... 나는 왜 이럴까 했는데, 이제는 애들도 말하고, 말 터놓고 하니까 좋아요. 막 자유스럽게. ... 초등학교 때는 그랬는데요, 싫었어요. 웬지 변화가 싫었어요. 변화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데요. 이상하게 몸이 변하는 것은 싫었어요. ... 지금은 담담하죠.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내가 여자가 됐구나. ... 지금은 내가 진짜여자구나. 내가 어른이 ... 몸은 거의 어른이 된 거 같아요.”(224)

“좋은 것 같지 않은”, “두려운/무서운”, “더러운”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는”, “불편하고 아픈”과 같은 신체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생리, 임신, 혹은 성폭력과 연관된 것이었다: “나도 크면 임신하고 생리하면 힘들겠다. ... 웬지 두렵고 그래요. 드라마 보면 성폭력 당하고 그러면 성폭력이 두렵고 ... 내 몸을 잘 보호해야 할 것 같은”(156). 이런 반응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변화와 관련된 것이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의 여성의 몸에 대한 담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있다: “무서울 것 같아요. ... 어머니께서 생리하다가요 그것을 흘리면 ...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보면 시선도 좀 그렇구요. 피를 흘리면 좀 이상하고 그럴 것 같아서”(155). 이들은 자신들이 ‘성인 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현재 경험하는 부정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다.

“별로 느낌이 없는”, “관심이 없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번덕쟁이인”, “여자인” 등의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는’ 표현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신기하다는 정도. ... 뱀뱀도 지가 알아서 크니까”(161). 이런 표현들이 중립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경험하거나 경험하게 될 변화가 좋지는 않지만, ‘성인’이 되고 있다는 징표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 변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 나누기 : 소극적, 배타적 공유하기와 저항하기

소녀들이 사춘기의 변화에 대해 지식을 얻고 경험을 나누는 것은 배타적인(남학생, 아버지, 남자 형제를 배제하는) 과정이었다. 또 참여자들 중 누구도 변화에 대해 더 알기 위해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단지 주어진 위치, 학생 혹은 자식이라는 위치에서 교육과 훈육을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라기보다는 수동적, 소극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였다.

사춘기나 사춘기의 변화에 대해 소녀들이 정보를 얻거나 소통하는 주된 대상은, 교사, 가족(특히 어머니), 그리고 친구였다. 사춘기에 대해 두 명의 소녀만이 학교에서 정신·정서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을 뿐, 대부분은 신체적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

학교에서 교사와의 소통시간-보건수업 혹은 성교육-은 “줄리거나”, “썩스럽거나”, “관심이 없는”, “딴 짓하는”, “관심 없는”, “깊숙이 이야기하지 않는” 시간이었다. ‘성교육’을 받았다고 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는 여학생들만 수업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이렇게 분리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어떤 때는 같이 하고 어떤 때 따로 수업을 하지?) 생리 그거요. 여자는 하고, 남자는 나가서 체육 하고. (왜 같이 하지 않을까?) ... [큰소리로] 절대 아니에요. ... 썩스럽잖아요. 남자에들에게 그런 것 [생리] 가르치면 변태 같아요. (왜?) 남자들이 여자의 몸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잖아요.(웃음). (남자도 여자의 몸에 대해 알아야 되지 않을까?) [큰소리로] 왜 알아야 되요?”(164).

교사와 사춘기적 변화에 대해 소통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주로 “비디오 시청하고” “생리대 나눠주고”, “이야기해주는”, 교사 중심의 일방적이며, 소극적인 정보 얻기의 과정이었다. 이 정보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식 중심이었으며, 학생들에게 의심할 바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정보 자체에 대한 만족감은 높지 않아도, “선생님이 말해주시니까” 자신이 정상적임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사춘기나 신체 변화와 관련하여 소녀들 대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가정에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소통하게 되는 경우는, 신체적 변화가 있는 후에, 어머니가 “약간” 혹은 “대충” 말해주었다고 표현하였다. 이 소통 과정에서 소녀들이나 어머니들은 모두 소극적이었다. 신체적 변화에 대한 어머니의 설명은 짧고 단편적이며, 주로 당황하는 소녀들을 안심시키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소녀들이 생리를 시작했을 때, 어머니들은 생리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매월 생리를 하게 된다는 것과 생리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며, 생리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말해주었다. 어머니들은 또 유방이 커진 딸들에게 브래지어를 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이를 사주고, 착용하지 않으면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음모 발생은 이들의 대화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참여자들에게 친구들과 변화된 신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친밀/소외의 표현이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통된 경험 (“생리를 한다”, “생리통이 있다”, “가슴이 커졌다” 등)를 친구들과 나누면서, 친밀감을 느꼈다. 또 다른 친구들이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소외감이나 부러움을 느꼈다. 그러나 친구들의 경험은 이후 자신들이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한 정보가 되기도 했다. 신체 변화에 대한 친구들과의 대화는 자신들이 특별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경험하는 것을 공유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그래서 자신의 신체변화에 편안하게 대응하는 방식이었다. 친구들과의 소통과정은 다른 이들과의 그것보다 적극적이었고, 그것이 담고 있는 정보 자체에 대한 것보다,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보다 큰 만족감을 얻었다 : “제 친구들 중에 [생리를] 저보다 빨리 [시작]한 애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약간 서툴거든요. [생리대를] 안 가져왔을 때 선생님들한테 빌려주기도 하구요.”(222)

그러나 이들이 항상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친구와 소통할 때, 그리고 성과 관련한 내용일 때는 달랐으며, 이는 현저하진 않았으나 지배담론에 대해 저항으로 보였다.

“그냥 무슨 년 생각하냐면서 ... 여자애들끼리는 남자친구들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쩌다보면 남자들하고 좀 그런 좀 ... 좀 ... 야한 이야기. 애들끼리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여자애들 끼리 좀 많이 하고. 너는 OCN 봤냐 그런 얘기 (OCN에서 뭘 보지?) 열두시가 되면 Hot Zone을 한다. 그런 것 봐봤나 하면서... 남자애들은 많이 봐요. ...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있고, 000야 너 그런 것 바뀐?(봤었니) 이러면서. ... 처음에는 대개 부담스러웠어요. 당황되고 이러니까. 그래도 제가 키도 크고 그러니까 제가 애들보다 좀 빨리 겪는 것인데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했는데, 이제는 애들도 다 하고, 말 터놓고 하니깐 좋아요. 막 자유스럽게. (말을 터놓는다는 게 무슨 뜻이지?) 너 [브래지어가] 무슨 컵? 막 이러면서요, 아- 야아 너 크다 이러면서 그러니까.”(224).

“여중이라도 남자애들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자애들끼리니까요 말이 거칠고 음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 (어떤 음란 이야기?) (웃음) ... (이야기해 줄 수 없어?) 아니요. 좀 약한 걸 이야기한다면 ... 성교육 비디오를 즐긴다던지 ... 여기 저기 남자친구들 ... 잘생긴 남자애들을 볼 때 그런 어투로 이야기하는 것도 많아요.”(221)

2단계 사춘기 담론의 틀 : 구획하기(Marking off)

담론적 틀은 담론 구획하기에 의해 드러난다. 담론에서는

구획하기를 통해 이쪽과 저쪽, 이것과 저것, 내부와 외부 등으로(예, 여성과 남성, 아이와 어른 등) 구분되며, 각각의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담론에서의 구획이란, “차이를 표시하기(marking differences)이며, 매우 중요한 사회적 결과이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말해질 수 있는 것과 행해질 수 있는 것의 경계를 정의한다”(Allen & Hardin, 2001).

사춘기 소녀들의 사춘기에 대한 담론에 대한 관념 혹은 사고방식은 세 가지의 담론적 틀로 패턴화되었다. 이것은 세 가지의 틀만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며, 이것들이 중요한 틀이었다는 의미이다. 이 틀들은 서로 배타적이고 독립된 것이라기보다 어느 정도는 서로 겹쳐지고 얽혀있다.

● 성적/무성적 존재로 구획하기

10대 소녀들의 사춘기에 대한 담론에서 참여자들은 인간을 성적/무성적 존재로 구획하고, 자신들을 무성적인(asexual) 존재로 위치시켰다. 이런 구획하기에 의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첫째, 소녀들은 현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성적 징후를 나타내는 신체적 변화(생리, 음모, 유방증대)를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춘기를 정의하고, 자신이 왜 사춘기인지를 말할 때 성적 변화를 나타내는 신체적 현상을 언급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고,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만 겨우 대답하였다.

두 번째, 성적/무성적 존재라는 대립항이 설정되면서, 상대가 되는 남성들은 비밀스런 그들만의 이야기에서 제외되었다. 신체적 변화는 감추어져야 할 비밀스런 일이 되었다. 소녀들 중 누구도 자신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 아버지나 남자 형제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또 그들이 그 변화를 알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설사 그들이 안다고 하더라도 모른 척하기를 기대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이와 관련해서 소녀들은 “남녀칠세부동석”을 지지했다.

● 남성/여성으로 구획하기

이 담론에서 드러난 다른 틀은 남성/여성 구획하기이다. 이것은 남성의 우월성 혹은 정상성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위의 구획과 다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차별적 관행은 남녀의 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여성의 몸은 남성의 몸에 비해, 열등하고, 더럽혀지기 쉬우며, 그래서 비정상적이다.

신체적 변화 과정에서 소녀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성적 존재가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이 된다는 것에도 있었다. 교사의 교육과 어머니의 훈육은 그들이 비정상인 아님을 확인해주었지만, 사회적 통념, 지배담론은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되었다. 순결/청결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만 강조되는 덕목이다. 생리를 시작하는 것과 함께 청결이 강조되고,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따른다. 생리혈에 대한 문화적 부

정성은 생리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더 심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되었다: “어머니께서 말하는데 생리하다가요 그것을 흘리면 ...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보면 시선도 좀 그렇구요. 피를 흘리면 좀 이상하고 그럴 것 같아서...”(155) 또한 여학생은 순결의 문제는 여성들에게 한정되는 것임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부분 남자애들 없는 곳에서... 이렇게 여자 선생님들끼리 여자애들끼리 특히 6학년 때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너네 남자애들 조심해야 된다고 ... 그렇게 하거나요. ... [중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이 좀... 여자는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어... 그랬다면서 여자는 좀 조심해야 한다고... 어 ... 주로 솔직히 말해서 여자랑 남자랑 잤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람피우면 대부분 여자한테 피해가 오잖아요”(213)

또 여성성이 드러나는 것은 만연한 성적 폭력들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몸이 변하는 것은 두려울 것 같아요. ... 자기의 몸을 직접 지켜나가야 할거라고 생각하니까.”(156). “몸가짐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 생리도 하나까 ... 남자들이 뭐 하면 안 되잖아요. 엄마도 몸가짐 조심하라고 해요”(214). 그래서 소녀들이 몸의 변화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몸은 취약하고, 손상되기 쉬우며, 부정적인 것이 되었다.

#### ● 성인/비성인으로 구획하기

연구에 참여한 소녀들 대부분은 학교생활 외에 학원에 가거나 집에서 학습지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이 부모에게서 가장 흔히 듣는 말은 “공부하라”였고, 공부를 잘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성취보다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는” “나중에 커서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자 방도였다.

공부하기는 이 시기의 과제 이상의 의미를 가진,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고, 아동기의 평온을 깨트리는 사춘기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변화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 “[제가] 사춘기 아마도 ... [그렇겠지요]. 가끔씩 마음이 우울해지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 나쁜 말, 당연히 들을 수 있는 말인데, 흉잡히는 말,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빠 가지고 한동안 침울해져요. 그래서 사춘기 같아요. 솔직하게 ... 많이 흔들리고 성적 같은 것에도 영향을 주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221).

“어른이 되는 도중에 있는”, 아직 성인이 아닌 이들에게 이전 시기와 달리 사람, 사물, 사태를 다룰 수 있는 지적, 정서적 능력의 향상은,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진보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더 어린 시기의 미숙함과는 또 다른 불안정성과 미성숙성으로 해석된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 중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아직 성인에 도달하지 못한 부족한 상태로 해석한다.

## 논 의

사춘기에 대한 소녀들의 담론을 구성하는 성적 존재/무성적 존재, 여성/남성, 그리고 성인/비성인 구획하기의 틀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성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변화의 핵심에 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단지 이것이 ‘정상’임을 확인하는데 몰두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춘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 의미를 가진 시기가 되었다.

첫 번째, 사춘기의 신장 증대를 제외한 다른 변화들은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해도 소녀들에게 대체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사춘기소녀들에게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성적 변화들, 유방이 커지고, 음모가 나고, 월경을 하는 것은 자신이 성적인 것으로 전환됨을 의미하였으며,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 하나는 미성년자로서의 성(sexuality)과 여성으로서의 성(gender)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사춘기 아이들이 성에 대해 몰라야 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부딪혀야 하는 성적 표현들로부터 완전히 차단될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 대신 “옛날 어린이들에게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큰 적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에게는 폭력과 음란 비비오가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성교육’을 통해 생물학적 의학적 지식들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여긴다. 미성년자에게 성은 생물학적, 윤리적, 문화적 이유로 “여기까지”의 경계가 모호한 어떤 영역-성교육-에서만 허용된다. 이 불분명한 경계선 안에서만 그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위협적이고 걱정스런 존재로 혹은 어른들의 관심 속에서 보다 따뜻하게 보호되어야 할 존재,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이지연, 1994) 이런 환경에서 소녀들이 사춘기의 성적 변화를 인지하고 자신들을 성적 존재로 인정하는 것은 성인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월경, 음모, 유방증대와 같은 징후를 무시함으로써 스스로를 탈성화하며(desexualize), 오로지 자신들의 변화가 정상적인가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주류담론에 대해 저항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드러난 그들의 저항은 현저하지는 않으나, 나름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성인용 영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성교육 비디오를 야한 영화처럼 감상하기도 하였다. 또 학교에 있지만 교사가 부재함으로써 학교가 아닌 공간에서는(화장실에 갔을 때, 옷 갈아입을 때, 쉬는 시간에 등) 자신들의 “비밀”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신들을 문제아나 일탈자로 여기지도 않았다.

이 연구에 참여한 소녀들의 담론에서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는 자신이 여성(화)됨을 의미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과학조차도 은유로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왜곡한다(Martin, 1987). 여성에게 사춘기는 “피 흘리는 존재로서 생물학적 비정상성”(Powers, 2001)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시기이다. 학교 성교육과 어머니의 훈육에서 “피 흘리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는 청결과 관련해 주입되고, 대중매체의 광고는 생리대가 어떻게 이를 지켜줄 것인지를 선전한다. 월경에 대해 교육되고 광고된다고 하더라도 소녀들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남자 형제나 남자급우들에게는 이를 숨기며, 자신 들끼리만, 여성들하고만 월경에 대해 이야기한다.

두 번째, 사춘기의 부정성은 정신적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사춘기를 그 자체로 정의하지 않고 어떤 상태를 기준으로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로 규정하였다. 이런 점은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상태를 표현할 때 두드러졌다. 산업사회에서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이 증가되면서(예, 학업기간 증가)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기간에 있는 이들을 ‘정상 성인’이 되기 위한 일종의 유예기간에 있는 존재로 설정한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성공을 위한 가장 예측력이 있는 지표는 학교성적이다. ‘성적 지상주의’에서는 학업 이외의 다른 어떤 과정도 포기해야 하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면제된다. 어떤 이유든 -그들이 말하는 사춘기의 정서적 기조인 우울, 불안, 불안정 등을 포함하여- 학업이라는 과정을 소홀히 하거나 이에 부적절할 경우 문제야, 반항아로 낙인찍힌다. 특히 학업 소홀의 이유가 이성교제나 ‘성적 문란’과 관련된 경우는 가정과 학교에서 완전한 일탈자가 된다. 그들은 스스로 짜증이 많고, 우울하고,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또래들과만 교류하며, 성인들에게 반항하는 사람들로 보였다. 오히려 그들은 인지적 수준의 변화로 사물과 사태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더 내면적으로 자신들 들여다보고자 하며, 권위와 진리를 의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게 되고, 스스로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소녀들은 지배 담론에 저항하기보다는 이를 수용하면서, 스스로를 ‘반항하는 십대’라는 이미지에 그대로 투영함으로써, 스스로를 주변적이고 경계적인 존재로 위치시켰다.

이 연구에서 소녀들은 지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에 해당하는 변화를 겪으면서도, 그 변화의 가능성과 긍정성을 단지 과도기적인 ‘정서적 문제’로 해석하고, 또 신체적 변화의 성적 징후를 무시하지만 이것이 단지 정상적임을 확인함으로써 미래에 ‘정상 성인’이 될 것임을 확인받고자 하였다.

##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소녀들의 사춘기에 대한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알고 있는 사춘기란 무엇인지, 이들의 사춘기 담론의 틀은 무엇인지, 또 그들의 정의 내에서 스스로 어떻게 정체화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이 시기 아동들의 발달 과제 해결과 건강관리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는 10년 8개월 - 14년 10개월(평균 12년 9개월)의 초등학생 13명(5학년 6명, 6학년 7명)과 중학생 11명(1학년 5명, 2학년 6명), 총 24명의 여학생이 참여하였다. 자료는 대면, 준구조적 면담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사전에 아동과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

이 담론분석은 2단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에서 나타난 소녀들의 사춘기에 대한 담론의 주제는 정상성 확인하기였으며, 이는 공통적 속성을 가진 5개의 범주를 가졌다 : 사춘기 정의하기(변화 경험하기), 사춘기 인정하기(자신들의 사춘기 정의와 연결하기), 실제적인 변화를 선택적으로 인정하기(자신들을 비성적인, 부정적 존재로 보기), 신체적 변화를 여성화로 인식하고 적응하기(별 것 아닌 것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가기), 그리고 변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 나누기(소극적, 배타적 공유하기와 저항하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소녀들의 사춘기에 대한 담론을 구성하는 틀이 확인되었다: 성적/무성적 존재로 구획하기, 남성/여성으로 구획하기 그리고 성인/미성년으로 구획하기. 이 세 가지의 주요 틀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성이 있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소녀들은 자신들이 성인에 비해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정신 정서적 경험을 부정적인 것으로 진술하였다. 유방 증대, 음모발생, 월경과 같은 기쁘지 않은 신체적 변화는 단지 정상적인 여성이 되는 과정으로 여쩔 수 없이 받아드려야 하는 과정으로 해석하였다. 그들은 사춘기적 변화가 자신들이 성적 존재나 여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일길 주저하였다. 또 그들은 자신이 처해있는 생의 시기에 대해 그 자체로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미래에 성인이 되기 위한 전환의 시기로 받아들였다.

담론분석에서 하나의 유일한 방법을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담론분석의 결과 역시 “하나의 결과”일 뿐, 이것은 그 담론에 대한 유일한 분석 혹은 해석일 수 없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정규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에 대한 것이다. 남학생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춘기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는 제외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가지는 위치와 여성이 가지는 위치, 또 사춘기에 있는 학생과 비학생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춘기의 담론을 탐구하는 것은 사춘기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 담론분석에서 드러난 것은 사춘기 소녀들이 자신의 정상성을 확인하고자 하면서도 사춘기인 자신의 위치를 주변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며, 이는 통제와 배제라는 지배담론의 효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지역사회, 학교, 병원과 같은 현장에서 사춘기에 있는 대상자들을 만날 때 간호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춘기 상은 무엇인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춘기에 처해있는 이들에게 정상점(peak point)에 도달하지 못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돕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남미, 김영란, 박영숙, 손인숙, 이성호 (2002). 사춘기 청소년의 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기반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내용설계 및 평가도구 개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4), 594-607.
- 김소야자 (1987).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간호*. 서울 : 수문사.
- 김성연 (1992). 미셸 푸코의 '지식-권력'론과 비판의 의미. 한상진, 오생근(편). *미셸 푸코론(124-192)*. 서울 : 한울
- 박영주, 김희경, 손정남, 천숙희, 신현정, 정영남(1999). 사춘기 여성의 우울 예측 모형. *대한간호학회지*, 29(4), 829-840.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 학지사.
- 우지희 (1997). 초경전 사춘기 소녀가 인식하는 월경에 관한 질적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도선 (2002). 34세까지 사춘기, 한겨레신문. 1월 3일.
- 이미나 (2000). 사춘기 아이 부모는 사춘기. 한겨레신문, 9월 15일.
- 이지연 (1994). 십대의 성을 찾아서. 김수기, 서동진, 엄혁(편), *섹스 포르노 에로티시즘: 쾌락의 악몽을 넘어서(94-113)*, 서울 : 현실문화연구.
- 이은주 (1995). *학령기 아동의 건강에 대한 담론분석*.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주 (2000). 후기 학령기 아동의 성지식 요구. *아동간호학회지*, 6(2), 167-185.
- 이은주, 홍경자 (2001). 간호학적 지식/권력과 실무 : 아동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아동간호학회지*, 7(1), 85-95.
- 정현숙 (1996). 사춘기 여성들의 월경경험. *대한간호학회지*, 26(2), 257-270.
- 정영남 (2001).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사춘기 여성의 신체상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7(3), 342-358.
- 홍창의 (2001). *소아과학*.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Allen, D., & Hardin, P. K. (2001). Discourse analysis and the epistemology of meaning, *Nurs Phil*, 2, 163-176.
- Breger, L. (1974/홍강의 이영식, 1998). *인간발달의 통합적 이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Cheek, J. (2000). *Postmodern and Poststructural Approached to Nursing Research*. Thousand Oaks : Sage Publications, Inc..
- Foucault, M. (1969/이정우 역, 1992). *지식의 고고학*. 서울 : 민음사.
- Foucault, M. (1980/홍성민 역1991). 권력, 왕의 머리베기와 훈육. C. Gordon (편),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111-140). 서울 : 나남.
- Lupton, D. (1992). Discourse analysis: A new methodology for understanding the ideologies of health and illness. *Australian J of Pub Health*, 16(2), 145-150
- Martin, E. (1987). *The women in the body*. Boston : Beacon Press.
- Miller, B. F., & Keane, C. B. (ed.). (1983). *Encyclopedia and dictionary of medicine, nursing and allied health*. (3rd ed.) Philadelphia : Saunders.
- Powers, P. (2001). *The methodology of discourse analysis*. Sudbury, Mass: Jones and Barlett Inc. and National League for Nursing. pp. 1-27.
- Whaley, L. F., & Wong, D. L. (1979). *Nursing care of infants and children*. St. Louis: Mosby Co..

# The Discourse Analysis of Puberty in Early Teenage Girls

Lee, Eun-Joo<sup>1)</sup>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eju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iscourse of puberty in the early teenage girls.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24, 11-15years old girls who were interviewed in face-to-face using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The interviews were done between October 29 and December 27 2003. Analysis of the qualitative data was done in 2 steps. **Results:** First, the theme of the girls' puberty discourse was identifying normality and consisted of 5 categories : i) defining puberty as experiencing changes, ii) acknowledging their own puberty connecting it with their definitions of puberty, iii) selectively excluding/recognizing the actual pubertal changes by seeing themselves as nonsexual and negative beings, iv) recognizing the pubertal changes as becoming women and making them not peculiar but normal, and v) sharing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of change inactively and exclusively and resisting the dominant discourse. Three main discourse frames, marking off sexual/nonsexual, man/women, and major/minor were revealed in the second step of the analysis. They were intricately woven with each other and converged on sex. **Conclusion:** The girls posited themselves as being asexual, unstable, and marginal. So there is a need to help them recognize their pubertal state as physical and mental paradigmatic changes and assure their pubertal changes as positive.

Key words : Puberty, Discourse analysis, Early teenager, Girl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Eun-Joo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eju National University  
66, Jejudaehakno, Jeju-si, Jeju-do 690-756, Korea  
Tel: +82-64-754-3881 Fax: +82-64-702-2686 E-mail: flym2m@cheju.ac.kr*